

190508 시민사회연대

회의자료 없음.

작년 하고 올해 뭐할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

모임에 대한 기조 점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제안 사항(acting) 허특제도 개선을 비공개

외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액팅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들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넓힌다면.. 어떤 사항을 염두??

원래 스터디는 기본으로 하면서 약간의 액팅이 필요할 때

강: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한 평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 발제~~ 어떤 방식.. 수정 보완?? 진전을 시킬 것인지 논의

선: 스터디를 기초로 하고 필요한 경우 액팅에 대해 다들 동의했다고 생각함.

연말 송년회에서 의약품 관련 사항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 쪽 더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음. 기존과 다른 철학 가치... 뭔지 모르겠고. 공부도 하고 같이 논의해보자.. 쌓아나가고 논의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기존 방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음. 모니터링 방식으로 했던게 전에보다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음. 그런데 왜 안됐을까?? 외부요인이 있는건가?? 뭔가 수동적인 영역에서 그 이후 남희섭변리사 들어오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음.

본인은 이 일을 그 전에 했던거 만큼 이번에 해보고 싶다. 저는 이 기회로 접근성이 저해된다.... 더 이상은 안먹히는... 재평가를 하면서 도출해보자!!ㅎ 충분히 각자 고민해보고 다른 걸 모색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 믿고 하는 건 반대함. 그렇다고 급한 건인가??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음.

개인 기반의 활동스타일... 어느 조직도 거르고 있지 않음. 조직의 결정을 믿고 하는 건데...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강: 잘 모르겠고, 무본경우나 연대활동이 상향식.... 밑바닥부터 다져가면서 ... 이걸 표면으로 끌어올 수 있을 때 아마 나올거라 생각했음. 이 모임은 파고들어야 하는 의제화시키고, 논의하고

김: 호흡의 문제가 맞았다고 생각함. 그동안의 운동방식과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고 생각함. 돌아가면서 발제한게 좋았었음. 단위별로 책임이 적었었음. 왜 안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기존 현안 중심으로.. 운동과제랑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음. 결론이 아니고 동향파악만 돼서 중심이 안잡히는 느낌이 있었음.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는 맞았음. 남변이 왔던거는... 액팅이 필요한거는 아니였는데... 수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개인베이스가 안될거라는 ...

액팅하게 되면,,, 이걸 모르는 다른 시민사회... 운동적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건지... 같이 움직이고 하는 기조... 부담감 있었음. 무리하게 액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유

연하게

강: 연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기억... 푸제온... 푸제온 하나의 약을 가지고 특허도 보고, 약 가도 보고,,, 여러 액팅을 위해서... 푸제온 같은 거는 타이트하게 조여져 갔었음. 결말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됨. 액팅에 적절한 사람은 없고,,, 나중에 보고서를 낼까? 이런 내용에서 시작했음. 이제 1년 됐으니깐... 반년... 내년까지? 결말점을 찾아가는 지점은 필요할 거 같음. 그래서 남변이 허가특허연계 주제 액팅을 주도하는게 적절해 보이지 않았음. 차라리 무본에서 가져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선: 남변... osf 시민건강연구소가 운동한다고 판단했었음. phm(민중건강운동)을 맡았다고 국제 수준에서 who감시... 문현 생산... 동아시아 대표를 맡게됨. 건약이나 건세 시간되는지... 4명이서 회의 했음.(비서관 포함해서) 비서관은 시민단체 안을 요구했음. 차근차근 밟는거 필요하다고,,, 남변은 마음이 급함. FTA때도... 한두명이 불어서 했었음.

특허연계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남변... osf기회로 조직을 키우고 싶다고 했었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엎기는 힘들거 같음.

강: 여러 단체들이 남변이 하는 거에 대해 건약은 무리가 없다고 봤었음. 건세랑 관심있는 단체들... 여기보다...보건의료단체연합

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 면담, 만나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함.

강: 식약처 압박을 할..

김: 식약처를 압박할 사안인가? 식약처가

강: 식약처가 잠정안을 시민단체 의견을 넣으려면

김: 정의당 간담회 가도 될거임. 남희섭변리사는 정의당 간담회 가는 필요... 그때라도 액팅? 본인은 식약처장 만나서 해결하려 하고 있음. 확인해봤더니 안전국장 면담 가능하다고 연락옴. 공개냐 비공개냐의 논의까지...적합? 정의당이 주선해주는.... 면담추진 사항은 아닐 수 있음. 남변은 식약처장을 만나서 설득, 제안하고 싶었던...

윤소하의원실에서 식약처장을 불러서 하는게 나을 거임. 그러면서 시민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선 각을 세울 안인지부터 판단...

선: 아예 싸울거인지... 말이 먹힐거라고 생각하는 ... 안먹힐거라고 생각하는... 안먹힐거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비공개라고 할까?

합리적인 비공개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시건연은 결합이 어려움. 단체차원에서 판단.... 이 모임과 허가특허연계는 다루지 않는다....

김: 남변안은 다시 건약....건세... 지금 허가특허 쟁기 어려움. 건세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움. 건약하고 논의해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게 있으면, 내용을 더 판단해야 함.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연대단위에서 판단을 뭐라고 하지 않음.

건약하고 논의하고 다음 월요일

전화 연결....

선: 허특제도 개선 사안... 시건연이나 건세는 결합하기 어렵다. 건약은 fta당시에도 같이 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건약... 연대모임을 1년간 해왔음. acting을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스터디가 우선... 장기적으로 보고 하자가 본래 방향이었음. 모임의 대응속도에 비해서 이 사안은 다루기 힘듦. 텔방 같이 대응하자고 한다. 내용은 첨부터 연구소에서 할 게 없다... 의 원실은 액팅.. 건약 건세...

기존 모임 활동방향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느낌...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생각이 듬.

세미나 참여하는 단체가 허특제도 공부정도... 행동하고 활동하는 거는 단체들 단위에서 움직임. 공석환 논의한거는

시건연, 건세는 허특 관련해서 논의하기 어렵고, 건약에서 같이 할건데,,, 월요일 2시에 된다고

건세는 지금 개별 단체 차원에서 불들고 가기 같 여력이 없음. 하지만 전체 연대체 운동을 할 수 있다고 건약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확대하면 말하면 될 것임.

식약처 간담회 공개여부 논의할 필요는?? ... 정리됐음.

작년 4월 시작해서 이제 1년됨. 그간의 평가... 하반기에 어떻게 하

근:

선: 동향파악으로 끝나는 방식, 현안대응하는데 바쁜데... 이걸 설명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 수 있는게 있나?

김: 스터디를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할건지... 전반적인 흐름이 엮어지는 기존의 현안 중심으로 다양하게 하다보니... 쭉 훑으나 식이었음. 우리가 대안적 생산체제... 이거에 걸맞은 정도... 작년보다 더 가지를 쳐서 대안적 생산체제를 위한 ...

선: 2기 소득이 있었음. osf phm 좀더 스스로 하는거는 있었음. 깨닫고... 예를 들어 의약품에서 의료기술까지... 세계공동대응이 필요할거 같다. 복지부 접근성 확대 노력에 대해 협조? 어떻게 할지.... 국외동향을 보면서 있었고, 이런 모니터링 그 전에는

김: 쪼금 더 스터디를 해보면... 활발하게 되진 않았었음. 하나의 줄거지로 엮어지지 않는다. 모니터링 위주로... 집중적으로 스터디?

강: 작년에 한국약가제도, 발제 그걸 그냥 잘 만들어진 거는 아닌데 모아서 자료집처럼 만들면.... 2018년 현재... 의약품 관련된 동향.제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해에 2018년이 가장 최신?? 한국의약품 법 제도,

김: 뭔가 줄기를 가지고 했었는지??

강: 이번에 바이오하는거 어때?? 이걸 아는 건 챕터를 나눠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해외 고가약은 권미란... 사회진보연대는 주가쪽.... 이런 식으로업체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강연도 듣고... 회수가 안됨. 정부가 돈만 주고... 어떻게 투자금액들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인가?

김:

선: 스터디를 해서 보고서도 나올 수 있고, 토론회도 하는 식의 액팅?? 건강관련 액팅... 속도가 어려움.

김: 모니터링은 결합해서.... 동향을 알고... 스터디랑 플러스... 커리큘럼... 제약바이오협회 알아보고.... 누가누가 할건지도.... 정하고...

선: 단체base+ 개인 한주성쌤은... 학위논문 주제로 한국제약산업 평가하고 싶다는 의견에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포함...

만약 개인에게도 하면 아예 공개적으로 하는 거 어때?? 시민사회연대로 생각했었음. 비공개보단... 지난 번 정혜주... 자문.. 교수는 반대... 비서관 오는 거는 어떻게 할지...

강: 공석환 오고싶다는 와도 별거 없을 수 있다. 공부하고 싶다는 의,, 기꺼이 배우겠다는

김: 단체base로 하는 게... 뭔가 판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때가 있음. 판단을 하면 책무성 acting 토론회 정도 아카데믹하게 가서.... 단체base 문제의식 다른 운동전략... 또하나는 활동가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확 열어두고... 양립할 수 없던거일 수 있음. 최종보고서 시민사회 개인base로 온다면.... 공석환이 들어온다.

강: 시민사회 활동가를... 교수 비서관

선: 학생-교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교수들을 보면... 그런거에 거리고... 정혜주, 김승섭,

시민사회 활동하는 개인.....권미란은 한주성은 단체 밑에 있는 활동
단체base로 하되, 연구소 회원으로서는 가능!